

문의 : 전력거래소 전원계획처장 김홍근(☎061-330-8144, 010-5233-2389)
전원계획팀장 김준한(☎061-330-8310, 010-2508-2573)

“신재생 과도한 의존엔 오히려 환경파괴”, “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 보니...
원전 있어야 효율성 극대화”(‘21.7.23, 매일경제)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

- ◇ 해당 연구보고서는 외부용역 결과로서 전력거래소의 공식 입장을 담은 보고서가 아님
- ◇ 보고서의 핵심 요지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임

1. 보도내용

- 전력거래소가 “신재생 과도한 의존이 환경을 파괴하고, 원전이 있어야 효율성이 극대화” 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전력거래소의 입장

- 기사에서 거론한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용역 결과이지 전력거래소의 공식 입장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님
 - 동 연구는 전력거래소가 매년 외부 산·학·연에 의뢰하는 수십여 건의 외부용역의 하나일 뿐이며 그 내용이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음
 - 동 보고서는 4개의 발전믹스*를 기준으로 총 12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, 총 5개의 지표**를 개발하여 평가한 것임

* 9차 전기본 / 재생e 30% 확대 / 재생e 40% 확대 / 원전축소 및 재생e 40% 확대

** 경제성 / 환경성 / 에너지안보 / 계통안정성 / 국민수용성

- 동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‘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이라는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’된다는 것이며,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음

〈 동 보고서의 연구결과 〉

- ① 종합적인 관점에서, 향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

- * 계통의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는 가정하에서,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경제성/환경성/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유리하며, 종합점수가 높게 평가됨

- ② 원자력에 대한 국민 선호도는 특정하기 어려워, 종합적 판단 필요

- * 원전을 독립적으로 볼 때는 비중 축소 선호가 높았으나,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제 시에는 선호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③ 석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수용성 측면에서 긍정적

- * 다만, 국민수용성 외 다른 복합적인 요인을 종합 고려 시는 종합점수 측면에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

- 동 보고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고, 원전 축소시에는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LNG발전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결론*을 담고 있어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. 그러므로 기사 제목과 같이 “신재생 과도한 의존때 오히려 환경파괴”라는 내용은 동 연구결과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것임

- * 연구보고서 원문 다운로드 : 공공기관 알리오의 기관별 공시(전력거래소) 41번 항목 참조 <http://alio.go.kr/popSusi.do?apbald=C0246&reportFormRootNo=B1260>